

# 건축이 들려주는 이야기

Tale Told by Architecture

글. 채민기 Chae, Min-gi · 조선일보 기자

서울시청을 담당할 때 썼던 예전 기사가 문득 다시 생각났다. 당시 한창 뜨기 시작하던 ‘서촌(西村)’ 일대 건축물들을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그 취재를 하면서 나는 평범해 보이는 골목길도 모퉁이마다 이야기 하나쯤은 품고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었다. 그때가 2009년이니까 옥인시범아파트가 헐리기 전이었고 화려한 카페며 음식점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딜쿠샤(Dilkusha)를 알게 된 것도 그때였다. 홍난파 가옥을 지나 좁은 골목길 끝에 다다르니 아마도 행촌동(杏村洞)이라는 동네 이름의 유래가 됐을 은행나무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 옆으로 붉은 벽돌집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오후의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이국적인 이름의 이 집이 백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니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찾아본 기사엔 딜쿠샤에 대한 내용이 없다.

딜쿠샤를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건 아마 상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동화에 나올법한 예쁜 집을 상상했는데, 눈앞의 딜쿠샤는 낡고 쇠락한 모습이었다. 주인이 서울을 떠난 뒤 사실상 버려진 집에 오갈 데 없는 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붉은 벽돌벽 주변에 이런저런 가재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얼마 전 ‘호박 목걸이’(Chain of Amber)라는 책을 읽으며 딜쿠샤를 다시 떠올렸다. 이 책에는 ‘딜쿠샤 안주인 메리 테일러의 서울살이 1917~1948’이라는 부제(副題)가 붙어 있다.

딜쿠샤 집주인으로 알려진 앨버트 테일러의 부인 메리 테일러가 삼십 여년 한국에 살며 보고 느낀 점들을 엮은 책이다.

앨버트 테일러는 1919년 3·1운동을 세계에 처음 전한 UPI통신 특파원이다. 그가 한 일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 줄로 적은 연도(年度)와 행적에서 인물의 체온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1923년 처음 지을 땐 서울에서 제일 큰 주택이었다는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알려주는 것은 부인이 남긴 이야기다.



딜쿠샤

책을 읽고 딜쿠샤에 다시 가 봤다. 고단해 보이는 모습이 전에 봤던 그대로인데 바라보는 느낌은 새로웠다. 지금 딜쿠샤의 2층 포치(porch)에는 열기설기 벽과 창이 둘러쳐 있다. 한참 바라보고 있자니 포치에 서서 주황색 쿠션을 연신 하늘로 던져 올리던 메리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일본 경찰이 남편을 연행해간 뒤 가택연금을 당했던 안주인은 포치에서 망원경으로 서대문 형무소 쪽을 살피다 남편을 발견했고, 남편의 눈에 띄길 바라며 평소 즐겨 입던 옷과 비슷한 색깔의 쿠션을 던져 올렸다고 한다.

계약도 없이 헤어진 남편에게 그렇게라도 안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지금 딜쿠샤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아파트와 재개발 현장의 크레인도 어느새 사라지고, 그 옛날처럼 언덕 위의 딜쿠샤가 형무소를 내려다보는 광경이 그려지기도 했다. 건축을 완성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다. 그리고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남긴 소소한 이야기가 역사책보다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한다.

딜쿠샤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주민들의 이주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건물의 법적 소유권 문제도 있어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지만 보존의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다.

어쩌면 건립 100주년쯤에는 새단장한 딜쿠샤의 포치에 서서 서대문 형무소 쪽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때 다시 서춘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된다면 딜쿠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